

시 김영자

수련 향기

연분홍 꽃그늘에 서면
한순간 여백의 창
그 신선도에 취한다

천강의 빛
건넌다.

*자꾸만 매만져 곱게 다진다

햇살과 구름 능선의
청량한 빛 쏟아진
한나절

쿵쿵 울리는 천동소리 속
피약벌에 작렬하는
초록 시간 데우고
허공빛 띄우는 꽃봉오리

가장 곱고운 침묵향
물보라로 일어나
저 먼 푸른 산 쓰담는다

일새에 어룡진 그림자
진흙탕에 영긴 가슴
천년의 바람 비답는*
몽환의 미소

심연 속 깊이 뿌리
내리고
가람비 연잎에 옥구슬
구르듯

약력
▲광주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영호남 문인협회 부회장
▲시낭송가



월색 교묘한

시 김용갑

존재의 시간

나는 오늘도 무언가를 찾아 강가를 걷는다
삶이 막막해서도 아니고 하루가 무거워서도

강을 찾는 것은 분명 아니다
남들은 다리를 건너는 나를 보고 할 일 없어
걷는다고도 하겠지만 내가 강을 찾는 까닭은
담백한 삶을 위하고 조금 더 단단하기를 바라서

한 생애 루틴처럼 오가는 길
어쩌다 허허해지면 윤슬에게도 한 생 되묻고
흔한 들풀 하나 만나서 고맙다고 사진 한 장 남긴다

그러다 영혼이 맑아지기를 그리며
좋은 시 한 편 주어지게 해달라고도 하고
언젠가 이 강기슭에 고요히 쉬고 싶다는
어떤 고적함에 빠지기도

그렇게 나의 한 생 견고한 수행을 바란다

약력
▲시와 사람, 시조시학 동단
▲광주문인협회 부회장(현)
▲한국문인협회 이사(현)
▲전남문인협회, 시인협회, 국제펜 회원
▲수상 : 전영택문학상, 국제펜 광주문학상 등 다수
▲저서 : '수서행기차를 타고' 등 다수



시 이향숙

바느질

오해가 깊어져 너털거린
마음의 소매 깃에
꽃무늬 덧댄다

박음질 째짤하면
뜯어지지 않는 숙명이라던데
토라질수록 교묘히 숨어든 아픔에
술기 터져 있다

당신의 안과 박을 고르게 매만져
헤어진 시간이 티가 나지 않도록
시집 접는다

뒤엎긴 사이가 풀리지 않아
불현듯 매듭을
잘라 버리기도 하겠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자투리 감정 한 땀 한 땀 기우며
어김없이 서툰 첫발 내민다.

약력
▲시인, 수필가
▲광주문인협회 이사
▲수상 : 아리랑 예술대상, 기독교 문학대상,
평택 사랑 전국백일장 장원(시), 샘터 수필 문학상, 한실문에
창작상



수필 강성남

동백

모질고 길었던 한파의 시간을 건너며, 나는 오래전 골목 어귀에서 만났던 한 그루 나무를 떠올린다. 살을 에는 바람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던 계절이었다. 주머니 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마음마저 움츠러들던 날들. 텅 빈 지갑처럼 속이 비어버린 마음에도 세상은 자꾸만 검은 손을 내밀었고, 겨울바람은 앙상한 가지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뭇가지의 뼈를 활듯 스치는 바람 소리는 오래된 상처를 되짚는 손길 같았다. 그런 모퉁이,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는 자리 한편에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었다. 동백이었다.

그 나무를 통해 나는 기다림이 소리 없이 쌓이는 것임을 배웠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눈이 내리듯, 하루는 또 다른 하루 위에 내려앉았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이 겹치며 시간은 무게를 더했다. 청록의 잎은 빛을 잃고 가지 끝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동백은 조금씩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뿌리 깊은 곳에서 불고 있는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서로를 감싸안은 뿌리들은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동백은 세상이 모른 척 지나가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어둠을 건너는 법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가다림은 더디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자주 흔들린다. 그러나 가장 차갑던 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시릴 만큼 매서운 공기 속에서 끝내 잡아왔던 것이 붉게 열렸다. 눈 위에 조용히 놓인 한송이 꽃. 사랑의 불씨처럼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동백은 그렇게 피어났다. 타오르되 소란하지 않았고, 흔들리되 꺾이지 않았다. 그 붉음은 화려함이 아니라 결의에 가까웠다. 오래 걸린 시간의 색이었다.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깨닫는다. 외로움이 끝내 겨울로만 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다림은 언젠가 향기가 되고, 절개는 빛이 된다는 것을. 밤길을 걷다 그 붉음을 마주한 이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었으리라. 깊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동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피어 있음으로써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써 먼저 희망을 밝혀 둔다. 돌아올 이를 향해 혹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켜야 할 무엇을 향해 말없이 등을 밝힌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꿇겼던 물결이 다시 흐르며 오래 멈추었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동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또다시 긴 겨울이 찾아와도 그 붉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

어쩌면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한 그루 동백으로 서 있는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소리 없이 시간을 건너며 가장 차가운 날을 지나 붉게 피어날 순간을 기다리며...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나무를 떠올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른다. 그대는 동백이여라.

약력
▲시인·수필가·아동문학가
▲시집 : '그리운 사람들', '담양가세 담양사세'
▲시조집 : '혹백사진'
▲동시집 : '하얀 미소'
▲동요집 : '새벽'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